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12 호 현대불교
2022년 11월 16일(음 10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부처가된다 안된다를떠나서 사람답게 사는것이 근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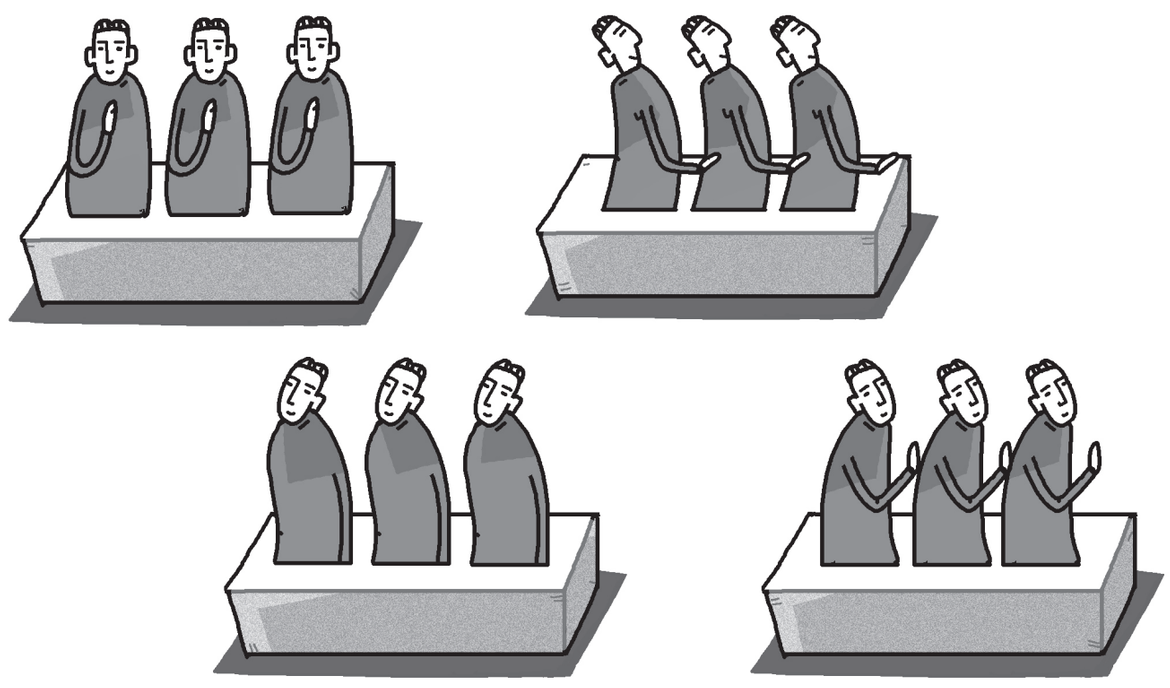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는 모두가 자기 몸이라는 싹 때문에 자기 종성(種性)을 모르고, 즉 종자란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 싹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항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괴로움도 더 많고,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이 모두가 겹쳐서 참, 사는 게 뭣인가 하고 허망한 생각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히 따지고 볼 때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거를 안다면, 살고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오분향을 말했지만, 오분향은 오계의 근본적인 공부하는 이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 예불에 이 오분향을 스님네들이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또, 스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오분향을 다 아실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해마다 받는 오계의 의미도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기 이전에 지혜로우면 껑충껑충 점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행동을 하며, 남편의 행동을 하며, 아들의 행동을 하며, 형의 행동을 하며, 아우의 행동을 하며, 사위의 행동을 하며, 친구의 행동을 하며, 사원의 행동을 하며 여러 가지를 자동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듯이 부처님 법에 요렇게 꼭 집어서 말씀해 놓으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다, 누구를 만나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만나고 말하고 듣고 보고 이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유스럽죠?

그런데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콩을 심어서 콩 싹이 났는데 콩 싹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자기만이 자기인 줄 안다 이런 거죠. 엄연히 자기 종자가 있어서 콩 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면 '아, 콩씨가 없어도 콩 싹이 없고 콩 싹이 없어도 콩씨가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요거 한 가지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둥글려서 말을 하려니까, 둥글려서 천체 나가려니까, 이것저것, 소소한 것, 뭐든지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게끔 항상 말을 하죠.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오계니 그런 게 모두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는 이치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 길을 걷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물은 강하면서도 유유히 돈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유유한 게 아니죠? 시대를 우리가 좇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우리를 좇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죽거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대는 바뀔 수도 있고, 좋게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주인은 우리 마음이죠.

지구의 근본과 우리의 근본, 우주의 근본, '삼천대천' 이렇습니다. '삼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삼천이랬나 하고 말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포함한 것을 삼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삼심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요거는 한 개체만 보는 견해에서 삼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본다면 '삼천'이라고 하죠. 이것을 삼세간이라고 하는데, 그 삼세간이 어떻게 돼서 일심으로 돌아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체가 바로 삼세간에서 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 내에 하세계, 중세계, 상세계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삼세계가 여기 우리가 지금 사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세간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면, '삼천' 하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한마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마음을 '천'이라고 합니다. 또 '대천' 이렵니다, 대천! '삼천대천'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마음과 저 외부의 한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간, 대천세계와 더불어 같이 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 하는 것이, 삼천은 벌써 돌아가고, 삼천이 대천하고 포함된 겁니다, 이게. '삼천' 하면, 삼천이라고 한 말은 금방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현실로, 그냥 대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일심이라. 내가 아는 마음이 천심으로 돌아간다. 남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마음이 천체와 다 같이 돌아가니 이건 무슨 까닭인가.

여러분이 죽어 보지 않았으니까 죽은 세상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업식에 의해서, 즉 남의 다리 긁어 가면서 살거든요. 허허허. 그런 경우가 많죠. 남이 이럭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흔들리면 나도 저렇게 흔들리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 안 된다 하는 말도 없이 그냥 천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중심이 없이 그냥 남의 다리 긁어 주면서 가는 거죠. 자기 다리를 시원하게 긁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삼천대천' 이럴 때, 삼심이 일심이면 그 대천과 지금 현실의 삼천이 둘이 아닌 까닭에 내 한마음에 응집이 되고 한마음에 정심(定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분향을 얘기할 때에 '누구든지 함이 없이 해라'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상이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이 무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이 없이 주되, 아주 똑바로, 똑부러지게 해 놓는 것이 바로 무주상이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깨달은 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함이 없이 무주상 보시 하라' 이런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70년경에, 처음에 이 집을 지었을 때는, 저기 조그만 가겟집 하나뿐이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동묘지였었구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공양주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도선생이 오실 테니까 저 문 좀 단속해라." 이러곤 무심코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변소 문에 이렇게 망을 쳐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망 쳐 놓은 것을 뜯고선 그리로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야 사람이나 몇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하실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밤중이 되면은 할 양으로 숨어 있는 겁니다. 집어갈 거나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 사람들 놀라겠고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고 그 지하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빨리 나와." 문을 열어 놓고 말입니다. "빨리 나와. 아, 빚을 준 게 있으면 대낮에 받으러 오지, 어찌 이렇게 밤중에 와서 남 놀라게끔 만들어?" 이러면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픽픽 웃는 소리가 나요, 허허허. 웃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 젊은 애가 신발을 벗어 들고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부처님 법에 이런 게 있다. 네가 뭐를 훔치러 왔어도, 가져가게 돼서 가져갔으면 바로 빚 받을 게 있어서 네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빚을 받으러 왔으면, 떳떳하게 앞문으로 들어와서 '나 빚 받으러 왔소.' 하든가, 그렇지 못하다면 '스님, 나 이런 게 이렇게 힘드니까 쌀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하든지 아, 그러면 내가 안 줄 사람이 아니야. 있으면 다 털어 줄 사람이야. 빚 갚는데 무슨 이유가 붙겠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참이나 있더니 그래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병이 나서, 상당히 급하게 생겨서…,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하하. "아, 더더욱 그렇지,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좀 줘서 보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삼백 정도 되게요.

왜 그랬느냐 하면 도둑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 22면으로 계속

